

| 예 배      | 일 시          | 장 소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주일예배     | 주일 오후 1시 50분 | 예배당  |
| 청년 큐티 나눔 | 금요일 오후 9시    | Zoom |
| 한민 말씀방   | 매일           | 카카오톡 |

## 주일 예배 봉사위원

|         | 04. 10 | 04. 17 | 04. 24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대 표 기 도 | 김영희 권사 | 김효종 집사 | 장래황 성도 |
| 성 경 봉 독 | 김영희 권사 | 김효종 집사 | 장래황 성도 |

환영 :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.

예배 안내 : YouTube에서 „브레멘 한민교회“ 검색하세요.

## 교회소식

4월 축복인사 -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(성도 간에)  
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걱정하지마!(자신에게)

1. 사순절 기간(3월2일~4월14일) 동안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
2. 역 라마단 운동 - 라마단 기간(4월2일~5월1일) 동안 이슬람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.
3. 고난주간 동안 “이사야”서를 읽겠습니다(2023년 말씀카드로 사용합니다)
4. 코로나 대응 - Luca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

## 교우동정

|    |         |
|----|---------|
| 생일 | 김에스터 자매 |
|    |         |

## 지난주통계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주일헌금     |  |
| 감사헌금     |  |
| 십 일 조    |  |
|          |  |
|          |  |
| 합계(Euro) |  |

## 브레멘 한민교회

Bremen Han-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

“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(히10:25)”



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 
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 
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

담임목사 이 상 호 (Sang Ho Rhee)

예배반주 이 세 현

교회 : Anna-Stiegler-Str. 124 28277 Bremen  
 전차 (Tram) 4번 / 버스 (Bus) 22, 29, 51, 52번  
 정거장(H) : Kattenturm-Mitte



<http://www.brehanmin.de>

## 주일 예배 Gottesdienst 5.사순절

- 찬 양 Gemeindelied ..... Liebevoll 찬양팀
- 송 영 Chor ..... 반주자
- 기 원 Altargebet ..... 이상호 목사
-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..... 사도신경(새번역) ..... 다같이
- 찬 송 Gemeindelied ..... 301장 ..... 다같이
- 기 도 Gebet ..... 정용현 안수집사
- 성경봉독 Predigttext.....시 91 : 4 -11(구p870).....정용현 안수집사  
(Pslam 91:4-11)
- 교회소식 Information & Begrüßung ..... (새 가족 환영)..... 이상호 목사
-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..... 이상호 목사
- 설 교 Predigt ..... 보호자, 하나님! ..... 이상호 목사
- \* 파송찬양 Gemeindelied ..... 선한 능력으로 ..... 다같이
- \* 축 도 Segnungsgebet ..... 이상호 목사
- \* 송 영 Chor ..... 반주자

**\*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**

†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.

† 다음 주일 기도 담당 : 김영희 원사

† 기도제목

1.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불안하지 않게 하소서
2.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
3.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
4. 김선택, 장보경(형가리)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

## 진리, 예수님의 말씀

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대학교수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은 순풍이었습니다. 그리고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. 대한해운 공사 뉴욕지사장! 이는 꿈만 같았습니다. 그러나 회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자 할 수 없이 나는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.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'유니포트'라는 운송 주선업 회사를 시작했으나 오일쇼크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.

깊은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, 대학시절에 보았던 성경 한 구절이 과거의 파편으로 날아왔습니다. "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(요8:32)" 저는 그 때 '진리가 뭐지? 지식이 아니었나? 진리가 뭐기에 나를 자유롭게 하지? 그럼 그 진리가 답답한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해방시킬 수도 있다는 건가?'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침내 나는 자유가 그리워졌고, 자유에 대하여 찾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앞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"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(요8:31)" 말씀은 저의 의문점을 조금씩 해결해주었습니다. '진리'는 내가 쌓아 온 지식이나 수많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 진리는 다름 아닌 "예수 그리스도"였습니다. 그동안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 잡기 시작했습니다. 우주가 진동하는 것과 같은 진동이 내 영혼을 울렸습니다. 눈물이 흘렀고 가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.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,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.

하나님의 학교 / 신정하 장로  
(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사장)

\* 하나님은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잠시 우리를 내버려 주시기도 한다.  
- Janne Guyon( 잔느 귀용, 1648~1717, 프랑스 작가) -